

제 17차 세계가금학회 및 가금산업박람회 참가보고

오 봉 국
(서울대 농대교수)
(한국가금학회 회장)

제 17차 세계가금학회 총회가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렸다. 당초 제 17차 총회는 폴란드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이념상의 문제 등으로 유산되었으며, 이번 핀란드 회의는 6년만에 열린 것이다.

여기서는 우리 참가단이 정기총회와 가금산업박람회를 참관하면서 보고 느낀바 행사내용과 결과를 요약한다.

■ 학회의 성격

세계가금학회(World's Poultry Science Association)는 1921년에 설립되었으며 가금분야에 종사하는 학자, 연구가, 가금관련산업체에 종사하는 인사 또는 관련기관이 가입할 수 있으며 회원 20명이상을 가지는 국가에서는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본 학회는 가금에 관한 조사 연구결과의 보고, 자료교환, 상호협력 등으로 가금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회의로서 1921년 화란의 헤이그에서 제 1차 회의를 가진 후 매 4년마다 회원국의 유지요청에 의하여 지역을 달리하여 개최되고 있다.

세계가금학회의 회원수는 60여 국가에서 약 6,500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지부가 설

치되어 있는 나라는 41개 국가로서 우리나라는 1972년 4월에 정식회원국으로 승인되었으며 북한은 1968년 9월에 지부승인을 얻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우리나라 지부의 회원수는 117명이며 북한지부의 회원수는 21명으로 북한의 학회활동은 저조한 편이다. 또한 세계가금학회 본부 평의원 160명중 한국에서 3명, 북한에서 1명이 선출되었는데 1978년 이후 북한 평의원은 공석으로 되어 있다.

세계가금학회는 인접회원국간의 학술 및 기술 교류와 협조를 긴밀히 하기 위하여 2개 지역연맹을 구성하고 있는데 유럽지역연맹(Federation of European Branches of WPSA)과 아시아 남태평양지역연맹(Federation of Far East and South Pacific Branches of WPSA)으로 되어 있다.

한국, 일본, 홍콩, 필리핀,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 7개국이 아시아남태평양지역연맹에 가입되어 있다

■ 제 17차 세계가금학회총회와 참가국 및 활동

금번 개최된 제 17차 총회에 우리나라에서는 32명이 참가하였으며 북한에서도 4명이 참가하

였다.

○회의명칭 : XVII World's Poultry Congress and Exhibition

○회의장소 : Fair Center, Helsinki, Finland

○개최일자 : 1984. 8. 8-8. 12

○참가국 : 한국, 북한, 미국, 소련 등 58개국

○참가인원 : 등록된 회원 1,587명, 특별회원 및 참관자 500여명합계 2,000여명

○주최기관 : 세계가금학회 핀란드지부 및 세계가금학회

대회진행은 일반 학술회의와 같이 개최식, 전체학술회의, 학술발표회, 청소년학술회의, 동반자를 위한 일반오락회와 관광, 산업전시회 등으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다.

☆ 전체회의(Plenary Sessions) : 8. 8-8. 11

전체회의는 가금산업 및 학문분야별로 이방면의 세계적인 권위자들에 의한 주제강연으로 이루어졌다. 개최식에서는 미국 퓨리나 회사의 H. L. Wilcke박사가 "세계식량문제에 있어서 가금생산물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 그는 여기서 동물성 단백질중 가금생산물이 값싸고 영양이 풍부하여 앞으로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야별 전체회의의 주제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 1의제(Session I) : 건강식품으로서의 가금생산물의 중요성

가. 가금생산에 있어서 육종학적 견지에서 본 위생의 중요성

나. 가금산업에 있어서 전염성질병이 미치는 경제적 손실.

다. 가금질병의 면역학적 대책

라. 가금생산물의 위생대책

●제 2의제(Session II) : 가금생산물의 품질문제

가. 난각질에 영향을 하는 제요소

나. 난질에 관한 유전, 육종

다. 가금육의 지방축적에 영향을 하는 제요소
라. 가금육 생산방법에 영향을 하는 제요소

●제 3의제(Session III) : 사료자원의 효율적 이용 방안

가. 사료효율에 관한 유전과 생태

나. 제한된 단백질 사료자원의 사료효율 증진방안

다. 제한된 에너지 사료자원의 사료효율증진 방안

라. 가금생산에 있어서 사료자원의 대체문제

●제 4의제(Session IV) : 가금생산에 있어서 경영과 유통

가. 현대적 가금생산 방법에 있어서 생산효율 증진방안

나. 효율적인 가금생산의 극대화 방안

다. 합리적인 채란양계와 브로일러양계경영에 미치는 제반 규정과 법규

라. 가금생산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문제

☆ 학술발표회

학술발표회는 9개분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각분과별 발표 논문편수는 다음과 같다.

분 과 별 발표논문 편수

분 과 별	발표논문 편수
1. 유전·육종	74편
2. 번식·생리	20
3. 양양·생리	71
4. 사료	58
5. 사양관리	71
6. 질병	63
7. 위생	23
8. 경영, 경제	10
9. 생산물가공, 처리	40

계 430편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오봉국박사(1편)가 가금육종분과에서, 한인규박사(1편)와 이규호박사(1편)가 영양분과에서, 최진호박사(1편)가 사양관리분과에서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북한측

에서는 논문발표가 없었다.

☆ 청소년 학술회의

대회기간중 농촌후계자 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술행사가 진행되었다.

- 경제적인 영양식품으로서의 가공생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 : 미국의 Shutz박사가 발표
- 가공산업에 관한 교육의 중요성 : 미국의 Bradly박사가 강연

☆ 평의원회의 (Council meeting)

1984년 8월 10일에 세계가금학회 전체평의원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오봉국박사, 한인규박사, 박근식박사가 참석하였으며 의안심의 및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정관개정안 통과

- 가. 정관 제 4 조에 지역대표 평의원의 임기는 4년단위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나. 평의원은 지부총회에서 선출되며 다음총회 개최전 9개월전에 그 결과를 본부에 통보하여 승인을 얻는다. (단 경과조치로 1984년도 평의원의 통보는 제17차 대회가 끝난 날로부터 2개월내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 다. 제 4 조 5 항 : 세계가금학회 본부 임원은 평의원중에서 선출하며 비밀투표에 의하여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 라. 정관 제 3 조, 5 조, 7 조의 일부를 수정통과시켰으며 그 내용은 임원회의 권한과 임기, 회기, 명예회원추대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 의결사항

- 가. 세계가금학회 회원의 년회비는 미화10불에서 15불로 인상하며 이중 5불은 지부활동비로 충당하고 10불은 본부에 납부한다.
- 나. 찬조회원의 년회비는 40불로 한다.
- 다. 준회원의 년회비는 정회원 회비의 반액으로 한다.

라. 종신회원의 회비는 500불로 한다.

● 본부 임원선출

- 가. 제18차 회기의 회장으로 제17차 대회 개최국대표인 Krister Eklund 핀란드 대표를 선출(1984 - 1988)
- 나. 부회장 5명을 선출하는데 9명이 입후보하였으며 선출된 새로운 부회장 명단은 다음과 같다.
수석부회장 : P. Siegel 교수(미국)
차석부회장 : B. Sheldon 박사(호주)
제 3 부회장 : F. Orozco 박사(스페인)
제 4 부회장 : T. Morris 박사(영국)
제 5 부회장 : S. Bornstein 교수(이스라엘)
- 다. 사무총장 : Rose-Marie Wegner 교수(서독)
- 다. 재정처장 : A. W. Brant 박사(미국)

● 제18차 개최지 결정

1988년에 개최될 제18차 세계가금학회를 유치하고자 일본과 화란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바 금번 대회 기간중 각국 평의원을 방문하고 접대하며, 대회유치를 위한 유인물과 선물공세 등이 있었다.

평의원회에 참가한 평의원수는 151명 이었는데 투표결과 일본으로 결정되었다. 일본의 득표는 101표, 화란의 득표는 50표였다. 여기에는 총회후 88올림픽을 쉽게 참관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몫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1992년에 개최될 제19차 대회는 화란에서 개최하도록 결정하였다.

● 아시아남태평양지역연맹 회의

8월 10일 한국, 호주 등 5개국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지역연맹 이사회가 개최되었는데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역연맹 학술대회 개최

- 가. 개최장소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플(예정)
- 나. 개최일자 : 1985년 9월(예정)

○ 회원국 보강문제

미가입국가로서 아시아남태평양지역 내에 있는 태국, 스리랑카, 중공, 인도네시아 등

- 대표에게 참가 종용하기로 함.
- 새로운 회원국으로 가입 신청한 인도와 피지를 승인하기로 의결함.
 - 지역연맹부회장직의 공석은 차기 개최지의 대표를 임명하기로 결정함.

■ 산업전시회

산업전시회는 500여명이 넘는 대전시설에 가공생산과 관련된 제품이 전시되었는데 세계 각국에서 가공산업체와 관련업체 129개 회사가 참가하였다.

참가회사의 출품 품목별로 대별하여 보면:

- (1) 종계 (2) 부화기구 (3) 케이지, 급수, 급수기 등에 관한 사양관리기구 (4) 각종 동물약품 (5) 도계기구 (6) 난가공기구 (7) 사료분석 기구 및 단미사료 (8) 가공생산 폐기물 처리, 가공 등 52개 품목에 관한 품목이 전시되었다.

주로 미국과 구라파지역 회사가 참여하였는데 부화, 도계, 난가공, 계분처리 등 대형기계 기구가 눈에 띄게 전시되었으며 기구의 특징은 자동화시스템과 에너지절약형으로 개선되고 있었다.

기타 사양관리 기구로서는 인공수정기구와

디비커 등 소형기구들이 많이 전시되었으며, 특히 세계 우수 종계회사에서는 각국에 산재해 있는 G.P.P.S.농장에서 온 참가자를 유치하여 파티를 열고 손님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전시관을 개설하여 한국에서 생산되는 각종 가공관계 생산품을 전시하고 나아가서는 한국의 가공산업의 발전상을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맺는말

이번 세계가금학회에 다녀오면서 우리의 국력이 크게 신장되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30명이 넘는 많은 인원이 참가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며, 여러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각국의 관심을 끌었던 것도 큰 성과로 생각된다.

또 총회기간중 LA올림픽 승전보를 듣고서 낯설은 이국인을 붙들고 환성을 올릴 수 있었던 것도 큰 즐거움이었다. 한편 우리 참가단의 일원이 북한측 참석자들과 대화를 시도했으나 별 반응이 없었던데에 아쉬움을 느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국력신장과 더불어 90년대에는 한국에서 총회가 개최되기를 기대한다.

9월중 분과위원회 개최

채란분과위원회 및 세미나

9월 17일(월) 오후 2시

육계분과위원회 및 세미나

9월 27일(목) 오후 2시

분과위원과 각 지역의 양계인, 계우회 등 세미나에 관심있는 양계인의 참석을 바랍니다.